

보도시점 : 2023. 5. 12.(금) 16:00 이후(5. 13.(토) 조간) / 배포 : 2023. 5. 12.(금)

UAM 팀코리아, 정책, 기체·운항 등 5개 실무분과 체제 구축

- 5월 12일 UAM 팀코리아 제6차 본 협의체 회의… 민·관 70개 기관 뜻 모아
- 실무분과 체제 구축을 통해 K-UAM 상용화 위한 본격 준비체제로 전환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5월 12일(금) 오후 2시 40분,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어명소 제2차관(위원장) 주재로 UAM Team Korea(이하 UTK*) 제6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* 산·학·연·관 협의체, K-UAM 주요사항 심의 기구(총 101개 기관으로 구성)
- 이번 회의에서는 '25년 말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UAM 팀코리아 체계를 정비하고, 도심항공교통(UAM) 상용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 - UAM 팀코리아 내 UAM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, 기체·운항, 인프라, 교통관리, 부가서비스 등 5개 실무분과*를 구축하고, 분과별 논의 결과를 법·제도와 연구개발사업 등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.
 - * 분과별 2~3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지원(관련 부처·민간기업·연구기관 등 참여)
 - 아울러, 이번 회의에서는 UAM법 제정 동향, R&D 추진 현황, 실증 관련 주요 사항 등 다양한 정책 추진현황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.
-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“UAM 팀코리아를 통해 도심항공교통(UAM) 상용화의 초석을 함께 다지고 있다”면서, “우리 도심항공교통산업이 세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 제정, 실증, R&D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승욱 (044-201-4197)
		담당자	사무관	김다운 (044-201-4278)
			주무관	손달현 (044-201-4198)

참고 1

UAM 팀코리아 실무분과 구축안

□ (분과 구축) UAM 상용화에 대비하여 생태계 전반적인 논의 및 관련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5개* 실무분과 체제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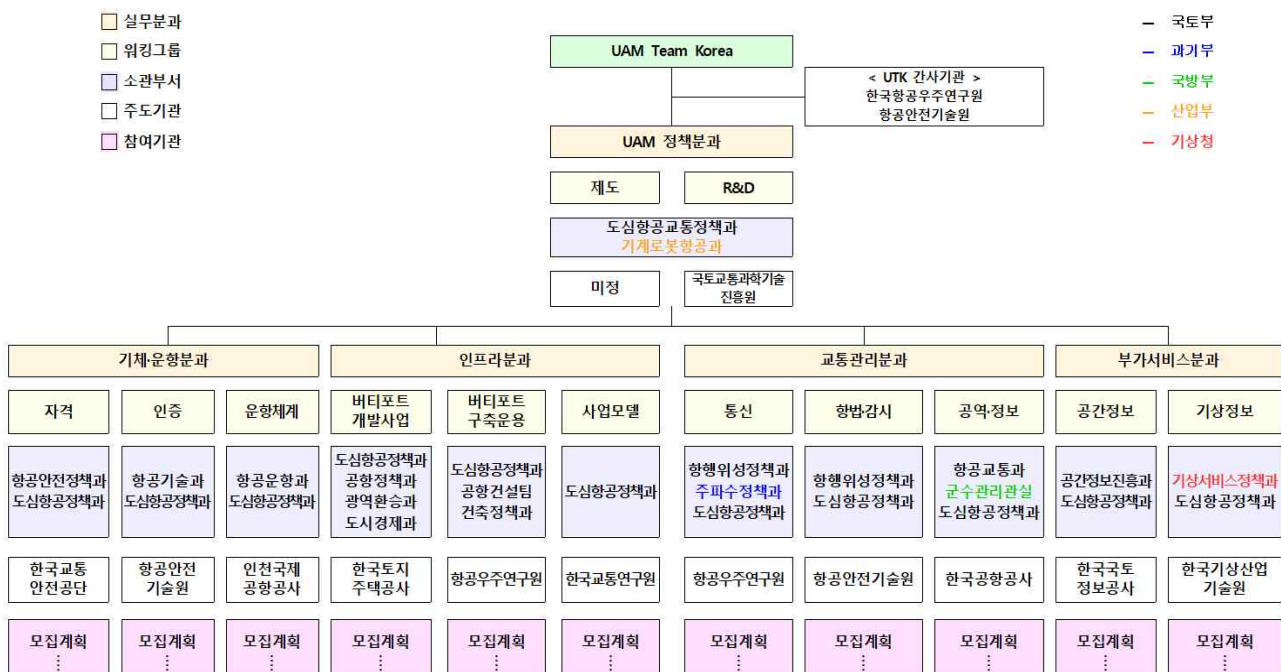
* 정책, 기체·운항, 인프라, 교통관리, 부가서비스

○ (구조) 5개 실무분과 아래에 세부 워킹그룹(WG)을 두는 형태

※ 분과별 세부역할

- ① (정책, 2WG) 나머지 4개 분과별 논의·연구결과 및 실증을 통해 취득되는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정책화(제도화, R&D 기획·운영에 반영)하는 공통 플랫폼으로 활용
- ② (기체·운항, 3WG) 국내외 인증동향 및 인증제도 검토를 통해 국내 운용에 적합한 인증 기준·절차, 운항증명, 종사자 자격 등 기준을 연구하고, 현행 항공법령 제·개정 사항 도출
- ③ (인프라, 3WG) 버티포트 설계·시공·운용 기준, 버티포트 권역 설계, 및 개발사업자 자격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, 사업모델 및 연계 교통체계 구축 방안 등 연구
- ④ (교통관리, 3WG) UAM 통신·항법·감시체계 구축, 최적 회랑·공역 설계, 교통관리 지원 절차 등 연구, 초기 안전운항 정보 및 서비스 지원 방안 도출
- ⑤ (부가서비스, 2WG) UAM의 도심지 운용에 필요한 공간정보(지형, 인프라, 건축물 정보 등), 및 기상정보에 대한 정보망 구축·제공 방안 연구

< UAM Team Korea 실무분과 운영체계(안) >



□ **그간 경과**

- UAM 산업 초기 불확실성 해소 및 민간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**서일준 의원**(국민의 힘, 경남거제) **법안 발의**(‘22.8.19.)
 - * 지자체 권한 확대가 반영된 허종식 의원안도 발의(더민주, 인천 ‘22.10.4.)
 - 상임위에 서일준·허종식 의원안 상정(‘23.2.15), 소위 심사(‘23.5.9~)

□ **UAM 법 주요 내용**

◆ 항공법령에 대한 **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·시범사업 추진체계** 등을 정의(자율차법 참조), 추후 기본법으로 전환(상용화 확대 이후)

- (**UAM 개념 정의**)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UAM 관련 개념, 참여 주체*별 역할 및 사업 추진체계 등 정의
 - *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,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, 버티포트운영사업자 등
 - 기본계획 수립, 산업현황 조사, 도심항공교통 정보시스템 구축,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·운영, 인력양성 등의 법적 근거 마련
- (**규제특례**) 기존 항공법규 적용이 배제되는 **실증·시범사업*** 제도화
 - * 안전을 위해 기존 항공법규(항공안전·사업·보안·공항시설) 적용을 전부/일부 완화하여 적용
 - (**실증사업**, 그랜드챌린지(Grand Challenge), ‘23~) 개활지 및 도심지 실제 비행을 통해 UAM 운항에 필요한 **안전·운용기준 등** 마련
 - * **실증 1단계** : 개활지, 전남고흥(GC1 ‘23년) / ** **2단계** : 도심지, 수도권(GC2, ‘24년 목표)
 - (**시범사업**, 초기 상용화, ‘25~) 실증사업을 토대로 일부 지역*에서 **UAM 상용화** 개시, 추후 전국 확산** 및 서비스도 관광·응급 등 다양화(‘26~)
 - * 지자체·관계기관·공공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 예정
 - ** ‘26년 이후 UAM 상용화 확대 시, 특례법 성격의 현행 제정안을 일반법으로 전환
- (**행정·재정지원**) UAM 산업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력양성, 국제협력 및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

□ **추진 배경**

- K-UAM 기획과제(1조 5천억원 규모) 예타대상 미선정(2회, '21.9, '22.6), 부처·전문기관 협의 결과, 부처 분리* 및 순차적 사업추진 합의('22.8)
 - * ① 국토부·기상청(안전 운용체계 등) ② 산업부(기체개발 등) ③ 과기부(차세대 핵심기술 등)
- 국토부·기상청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①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* 및 ②신속예타(7 → 4.5개월) R&D 사업에 UAM R&D 반영 추진
 - *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10개 세부 중점기술 도출('22 2건, '23.上·下 각 4건)

□ **추진 현황**

- 그간의 미선정 사유 등을 보완하고 시급한 내용 위주로 사업을 조정(국토부·기상청) 하는 등 UAM R&D 사업* 재기획
 - * K-UAM 안전운영체계(교통관리, 기상관측·예측 등) 핵심기술개발, 3천억원 규모('24~'28년)
- ① (국가전략기술) '23.上 4개 과제 선정(~5월) → 첨단모빌리티 분야에 관계부처들이 5개* 사업 제출, 부처 발표평가(2.8, 과기부)
 - * ①UAM 안전운영체계(국토부) ②도심 수소전기트램(국토부) ③수소전기자동차 실증(국토부) ④복합버티포트개발(중기부) ⑤첨단항공모빌리티 비행체 개발(산자부)
- ⇒ K-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「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(과기부)」 심의(4.4)를 거쳐 '23.上 4개 과제에 최종 포함
- ② (R&D 신속조사) '23년 1차 예타대상 선정(4월)을 위해 UAM 사업을 제출(3.2), 부처 대면회의 발표(3.21)
 - ⇒ 과기부에서 '23년 1차 신속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(4.12)
 - * '24년 신규 R&D 예산 배분을 위한 사전 컨설팅 수행(4.4, 과기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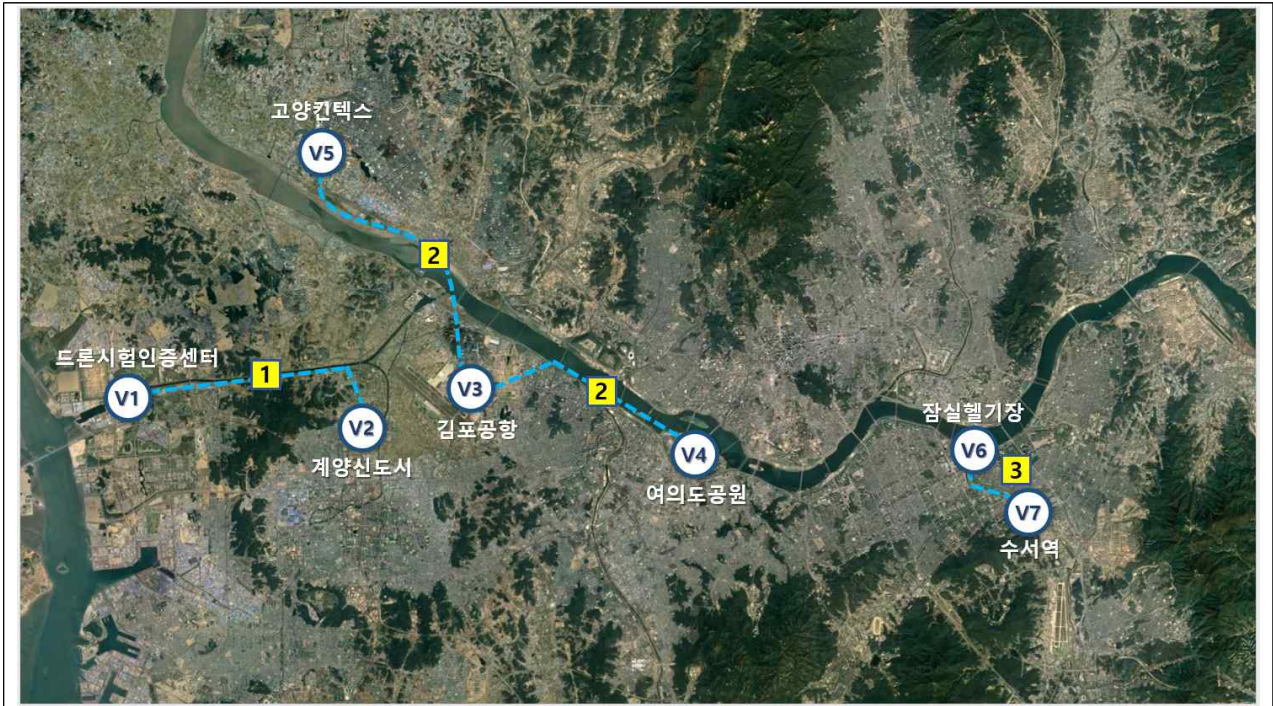
□ **향후 계획**

- '24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예타대응, 예산편성 조속 추진('23.上)

참고 4

UAM 실증 2단계 수도권 실증노선

□ UAM 수도권 실증노선 ※ 안전 등을 고려하여, 주로 강(江) 위로 선정



1 (1단계, 아라뱃길) 준도심에서의 안정성 검증

2 (2단계, 한강) UAM의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실증

3 (3단계, 탄천) 본격적인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

□ UAM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

실증노선	버티포트	
1단계, 아라뱃길 (‘24.8~’25.3월)	ⓍV1	드론시험인증센터
	ⓍV2	계양신도시
2단계, 한강 (‘25.4~5월)	ⓍV3	김포공항
	ⓍV4	여의도공원
	ⓍV5	고양킨텍스
3단계, 탄천 (‘25.5~6월)	ⓍV6	잠실헬기장
	ⓍV7	수서역